

400살 돈키호테에게 배우는 도전정신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을 따자.

-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중에서 -



벤 처인들에게 올해가 벤처 재도약 원년이라면, 문학 사적으로 올해는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출간 4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재기발랄한 시골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원제인 소설 《돈키호테》는 지난 1605년 1부가 출간됐고, 10년 후인 1615년 2부가 나왔다.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소설인 《돈키호테》는 그 명성에 걸맞게 '유럽 최초의 베스트셀러', '제익스페어의 소설과 함께 서양 문학계의 최고봉'이라는 찬란한 수사들이 바쳐져 왔다. 최근 2002년 노벨연구소가 세계 54개국 100명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문학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로 뽑히기도 했다.

고유명사가 된 문학작품 속 살아있는 캐릭터

400년 전 세르반테스는 당시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통속적인 기사소설을 응징하기 위해 《돈키호테》를 썼다. 반종교개혁운동과 합스부르크 절대왕조의 통치하에 있던 스페인에서는 자유롭게 작품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사소설이라는 틀 속에 돈키호테의 광기를 이용하는 형태로 교묘하게 당시 사회를 비판하면서 유포피아를 꿈꾸었다. 종교와 연애의 자유, 계층간의 평등, 정의로운 재판 등을 꿈꾸었던 세르반테스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돈키호테》를 통해 끊임없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후로부터 400년이 흘러 《돈키호테》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신간'이자, 21세기 먼 이국에서도 친숙한 고유명사가 되고 있다. 전 세계인들에게 《돈키호테》가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으로 인간의 본성과 세태를 꼬집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상을 향해 무모하지만 용기있게 나아가는 행동형 인간 돈키호테의 매력 때문일 것이다.

산초여, 나는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저 거인들과 싸울 것이다

거대한 풍차를 흉악한 거인으로 생각하고 돌진하고, 양떼를 교전중인 군대로 생각하는 미치광이 돈키호테. 흔히 돈키호테는 사색과 회의에 몰두하는 우유부단한 사색형 인간형인 햄릿과 대비되어 자신의 이상을 향해 무모하지만 용기있게 나아가는 행동형 인간으로 일컬어진다. 일면 지식인을 대표하는 햄릿형에 비해 돈키호테는 아집이나 독선이 가득한 '생각없는 몽상가'나 현실과 괴리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취급되면서 희화화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올해로 400살을 먹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어느 때보다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우리 벤처인들에게 '기사도 정신'을 가진 돈키호테는 더 이상 무모한 인간의 전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깡마른 말을 타고 커다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가진 자의 도전정신과 용기로 느껴진다. 그리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며 아무리 조롱받고 상처를 입어도 끝까지 한사람이라도 노력한다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돈키호테의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큰 울림을 남긴다.

사실 우리는 오래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기회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오래 망설이기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걸음 앞서 나갈 수 있다. 기회다 싶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잡을 일이다. 실패할 때 하더라도 일단 도전해 봐야 후회가 남지 않을테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쩍 마른 '로스난테'라는 말을 타고 어리석은 '산초판사'와 함께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나는 돈키호테. 혁명가 체 게바라는 죽기 전 마지막 혁명의 불꽃을 피우려 볼리비아로 떠나며 "내 발뒤꿈치에 로시난테의 늑골이 닿는 걸 느낀다"고 했다고 한다. 지금 벤처인이여 그대의 발뒤꿈치에는 무엇이 닿고 있는가.